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2011년 11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 : 바이오헬스과 강혁기 과장, 이동원 사무관(2110-4761/5661)	

지경부, IT 병원 수출생태계 조성에 착수

- 기업, 병원 협력의 장 마련위해 「IT융합병원 수출 포럼」 개최 -

※ 일시/장소 : '11.11.23(수) 15:00~17:00 / 상암 DMC 전자회관 12층

□ **지식경제부는** 의료IT를 중심으로,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개척을 위해, **11월 23일 상암 전자회관에서 병원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"IT융합병원 수출포럼"을 개최함**

○ 이번 행사는 **코트라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(이하 KEA),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(이하 조합)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등 IT융합병원 수출 관련 주요 기관이 공동 참여**

* IT융합병원 수출 : 의료IT를 매개로 이와 연동된 전자의료기기, 병원건립, 의료 및 장비 운영 컨설팅 제공 등이 연계된 패키지형 수출상품

○ **IT융합병원 수출과 관련한 첫 공개포럼**으로서,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의료기업과 병원들이 큰 관심을 갖음

* 의료IT·기기기업 1700여개 대부분이 영세(80%가 10억원 미만 매출)하나, PACS('10년, 인피니트 천만불 수출) 등 의료IT 중심 수출확대 중
* 삼성물산은 삼성의료원, 삼성전자, 삼성SDS 등과 함께 계열사 연계 추진 중

□ 지식경제부는 **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→ 수출적합형 인프라 구축 → 해외유망 프로젝트 발굴 → 중소 의료기업과 병원을 연계한 수출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가치사슬을 연계, 기업과 병원이 동반 해외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**하겠다고 밝힘

○ 지경부는 중소기업 중심 수출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**'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'**을 설립하였으며, 8월에는 조합과 에콰도르, 페루간의 디지털병원건립 협력 컨설팅 MOU가 체결된 바 있음

- **조합은 남미 병원 건립사업과 함께 오지에 '디지털이동병원' 수출 사업도 추진할 예정**이며

- 폭넓은 국내 의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과 정보확산을 위해 **지방 설명회도 추진 중임**

* 주요 설명회 일정 : 11.23 부산(15시, 이비스 앰배세더 부산호텔), 11.25 대구(10시, 경제자유구역청), 12.8 인천 등

□ **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**은 내년에 의료시스템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, 기술개발·인프라 구축과 함께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힘

○ "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수제품 개발능력과 병원의 서비스 역량이 융합되어야 한다" 면서,

○ "일본 경제산업성도 작년부터 기업, 병원과 함께 의료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, 우리 기업, 병원, 정부도 힘을 합쳐 광활한 헬스케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"이라고 함

참고1 : IT융합병원 수출포럼 개요
참고2 : 헬스케어 해외시장 동향
참고3 : 지경부 지원 현황

참고1 IT융합병원 수출포럼 개요

□ **일시/ 장소** : ’11.11.23(수) 15:00~17:00/ 상암 DMC 전자회관 12층

□ **주최 :**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(KEA)·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, 코트라·디지털병원수출조합 공동

□ **후원 :** 지식경제부, 전자신문

□ **주요내용 :** 지경부 지원사업 성과발표, 수출조합의 해외진출 지원 현황과 계획, 업계의견수렴(패널토론)

□ **참석자(150여명)**

○ 정부·유관기관 : 지경부(김재홍 성장동력실장), KEA, 코트라, 수출입은행

○ 기업 : 루트로닉, 비트컴퓨터, 범건축 등

○ 병원 : 서울대병원, 성민병원 등

< 프로그램(안) >

일 시	내 용	비 고
15:00~15:05	개회사	KEA 부회장
15:05~15:10	**환영사**	**성장동력실장**
15:10~15:15	홍보동영상	
15:15~15:30	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성과발표	KEA (김성복 상무이사)
15:30~15:45	디지털병원 정보시스템 의료기기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성과 발표	ETRI (함호상 소장)
15:45~16:00	디지털병원 수출프로젝트 추진 현황	수출조합 (최재훈 전무)
16:00~16:15	IT융합 의료산업 육성 정책 발표	지경부 (강혁기 바이오헬스과장)
16:15~17:00	패널 토론(45’)	전체
17:00	결과정리 및 폐회	전체

참고2 헬스케어 해외시장 동향

□ 요즘 병원에서는 환자의 기록을 컴퓨터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, 또한 X레이나 MRI를 찍으면 촬영된 사진을 의사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분석, 진단할 수 있음

○ 대부분의 국내 대학병원은 이러한 전자의무기록(EMR), 의료영상전송시스템(PACS)을 이미 갖추고 있으나, 동남아 등 신흥국은 물론이고, 미국·유럽 등 선진국도 아직 의료IT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

○ 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계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의료 IT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

<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>

분야	2009년	2015년
의료서비스	$2.2조	$3.8조(8.3% 성장)
의료기기	$2.8천억	$3.9천억(5.7% 성장)

* 타 산업 세계시장규모(‘08) : 자동차 $1.6조, 통신서비스 $2조, 은행업 $1.8조

□ 특히 **자원부국, 개도국**을 중심으로 **헬스케어 분야에 정부재원을 집중 투자**함에 따라 **의료기기·병원건설·운영서비스 수출시장 성장**

○ 사우디 등 중동자원부국은 자국민 보건향상투자와 의료관광유치를 위해,

- 정부재원 또는 민관합작사업(PPP)으로 대형병원 현대화사업 추진 중

* PPP : Public Private Partnership

- 당뇨환자가 많아 원격진료(U-헬스) 시스템에도 관심

* 중동당뇨환자 증가 예상(백만명): (’00) 20 → (’30) 52.8(164% 증가율), 참고로 미국/캐나다는 ’30년까지 72%, 유럽은 32% 증가율 예상(Wild 2004)

○ 중남미의 경우 과거 정부차관 형태(EDCF)의 병원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자국재원의 사업도 적극 추진 중

○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도 낙후된 의료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부지원을 할 계획임

* 러시아는 ’20년까지 의료장비현대화 등 약 4,800억 루블(약 160억불)을 투입할 예정이고, 카자흐스탄은 100개 병원 건립프로젝트(약 25억불) 추진 중

참고3 지경부 지원현황

□ **(기술개발)** 병원 전자건강기록, 원격관리 등을 위한 R&D 과제를 추진하여 '14년에는 미국보다 우월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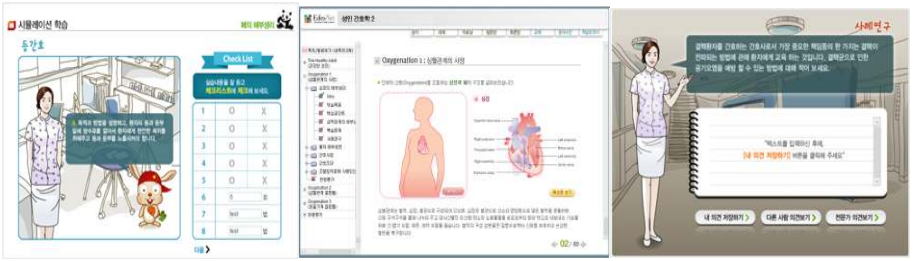
과제명	사업	총괄
디지털병원 정보시스템-의료기기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	바이오의료기기 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	한국전자통신 연구원
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웍 개발	WBS사업	이지케어텍
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개발	WBS사업	인피니트헬스케어

□ **(인프라)** 해외 교육훈련을 위한 온라인 매뉴얼, 해외발주처가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(ROI) 분석시스템*, 업무프로세스 정의·병원설계기준 등을 포함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구축(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행)

* 병원에 IT를 도입할 경우의 차트, 검사 등 관리비용 절감액 평가(영문)

○ 개발된 기술과 인프라는 국내 3개 시범병원(용인강남병원, 인천사랑병원, 성민병원)에 실제 적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고 있음

<온라인 교육훈련 매뉴얼 사례>



□ **(프로젝트 발굴)** 코트라는 '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'를 통해 기존 의약품, 의료기기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병원건설·의료시스템 수출 프로젝트 발굴도 신규 추진 중

○ 지난 11.16일에는 'Global Healthcare Korea*'를 개최하여 해외 유수 병원 매니저를 초청, 파트너링 행사와 국내 병원 투어 추진

* 11.16~17(코트라), 사우디, UAE, 러시아 등 병원건설·운영 프로젝트 발주처 9개사, 국내 병원·기업 등 50개사 참여